

## 반쯤 열린 미술관 | 작가 인터뷰

권순우

2017.2.3

권순우: 이력이 흥미롭다. 대학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 영화제작사에서 일하다가, 문지문화원 사이 프로그래머를 거쳐 현재는 작가 활동을 하고 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작업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 같다.

김지연: 어릴 때부터 영화를 보며 예술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래서 영화 쪽 일을 하기도 했고. 지금 다루고 있는 매체는 사운드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영상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 소리 작업을 구상하고 편집하는 방식도 영화적인 뭔가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영상에서 다른 미디어로 바뀌게 된 건 큰 전환이었다. 그럼에도 '영화적인 것'에 대한 자장은 남아있다.

권순우: 전환점이 필드레코딩 작업 때부터인가?

김지연: 그렇다. 물론 처음에는 소리들로 앨범을 만들거나, 전시를 하겠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구체적인 결과물을 기획했다기보다는 직접 디바이스를 만들고 소리를 픽업하는 게 그저 재미있었다. 소리들에 내러티브를 엮고, 또는 스틸사진과 같은 인상으로, 실험적인 방식으로 소리를 믹싱 하면서 차곡차곡 음원의 형태를 만들게 된 것 같다.

권순우: 녹음하는 도구를 직접 만드나?

김지연: 그렇다. 만드는 디바이스에 따라 어떤 걸 듣고 녹음할지 대상이나 방법도 조금씩 달라진다.

권순우: 어떻게 달라지나.

김지연: 보통 '마이크'는 공기 입자의 진동을 기록하는 걸 말한다. 그러나 전자기장을 픽업하는 장치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일반적으로 소리라고 분류되지 않는 파동을 잡아내고 기록할 수 있다. 또 '솔라셀(solar cell)'이라고 불리는 태양전지판을 픽업 장치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의 시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형광등의 빠른 깜빡임을 시그널로 기록할 수 있고, 그걸 소리로 변환할 수 있다.

빛의 변화와 같은 시각적인 움직임을 노이즈 같은 소리로 채집할 수 있게 된다. 딱딱한 고체에 붙여 진동을 잡아내는 방식의 '피에조 픽업(piezo pick)'이라는 장치도 많이 쓴다. 그걸로 한강대교, 철로, 워터타워, 와이어, 나뭇가지 같은 소리들을 수음했다.

권순우: 해외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해외 사운드 아트씬과 연결고리가 있나.

김지연: 기록 장비들이 간편해지면서, 소리라는 매체가 미술 쪽에서도 접근 가능한 소재가 됐다. 2011-2012년 유럽에서 필드레코딩 관련 작업이 붐물 터지듯 나왔다. 당시에는 국내에 필드레코딩과 관련한 리소스가 많이 없었다. 웹으로 서치를 많이 했다. 사운드캠프나 블로그에 꾸준히 작업을 올리면서 관심을 공유하는 해외작가나 레지던스에서 연락이 왔고,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됐다.

권순우: 작업 속 소리들이 꽤나 지시적이란 생각이 들었다. 이를테면 이 소리는 빗소리고, 이 소리는 바람소리, 라는 식으로, 픽업된 소리 자체의 맥락을 그대로 보존시키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소리를 시각화하려는 시도처럼 보였다.

김지연: 나는 녹음 당시 현장 풍경을 전부 알고 있지만, 듣는 사람들은 현장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 결국 녹음된 소리만을 가지고 현장을 전달해야 한다. 녹음된 현장의 환경과 시간을 온전하게 들려주는 방법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걸 '음악'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건 재미가 없었다. 음악이란 장르에서 소리를 경험하는 방식은 꽤 전통적이고, 다소 한정적이니까.

미술의 영역에서 작동하거나 읽히게 된 것 같다. 지시적인 소리, 시각화하려는 소리 같다는 느낌은 아마도 내가 소리를 대하는 태도 때문인 것 같다. 나는 소리라는 재료가 그 자체로 읽혔으면 한다. 소리에 담으려는 내러티브는 음악적이라기보다는 문학, 영화, 사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묘사적이고, 시적이고, 장면적인.

권순우: 이번 전시 작업도 34분이라는 짧지 않은 러닝타임이지만, 최대한 타협해 나온 최소한의 길이감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단순한 장치를 통해 소리로 둘러싸인 환경 속에서 시간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었다.

김지연: 음악을 할 땐 정작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을지 고민을 안 했는데, 전시를 하면서는 세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공간에 따라 방문해 음악을 듣는 전시라는 형식 자체가 특이점으로 작용되니까.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관객이 공간에서 작품과 대화를 하고, 어떤 걸 발견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런 걸 시도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

권순우: 어떤 시도들을 할지 궁금해진다. 향후 계획은 어떤가.

김지연: 올 2월 문래예술공장에서 MAP 프로젝트의 일환인 <Transparent Music 투명한 음악>을 연다. 공연장 안과 밖, 현실 공간과 웹 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세팅에서 음악이 연주되고 듣는 방식의 음악회다. 5월에는 런던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 제주에서 프로젝트를 할 계획이다.

Soundcamp(soundtent.org)라는 콜렉티브에서 매년 라이브 스트리밍 관련한 흥미로운 작업들을 해온 친구들이다. 제주에서 함께 협업 중인 이강일(iiiigy.tumblr.com)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일반 관객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룻밤 동안 캠핑을 하면서 삼십 분씩 여러 나라의 소리들을 듣는 이벤트다. 톱툼이 소리를 관찰하고 기록, 공유하는 워크숍도 가져보려고 한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7867>